

1980년대 초기 노동연극 연구

- 민주노동조합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임지희*

<차례>

1. 서론
2. 작품의 창작배경
3. 노동현실의 형상화와 계급의식의 각성
4. 전통극의 수용을 통한 지배계급 비판
5. 작품의 의미-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이 글은 80년대 초기 민주노동조합에서 창작되어진 노동연극을 다루고 있다. 70년대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민주노동조합 결성의 계기점이 되었다. 민주노조에서는 소모임을 만들어 조직 활동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탈출반이다. 탈출반에서는 연극을 사회적 통로로 활용하였다. 즉 연극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80년대 민주노조에서 창작된 연극에서는 당대 노동자들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열악한 공장 환경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연극에서는 전통극을 극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있다. 탈출에서의 양반처럼 지배계급이 스스로 결함을 폭로하는 희화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말뚝이를 등장시켜 직접적으로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의식을 모은다.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연극은 노동자들의 저항의지와 새로운 사회건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주제어: 마당극, 노동연극, 민주노동조합, 노동자 주체성, 지배계급, 비판의식

1. 서론

1960년대부터 한국 전통극의 형식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마당극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마당극은 변혁운동의 실천적 요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억압된 시대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출구로써의 기능과 매체통로의 역할을 담당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마당극은 연극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사회제반의 문제를 소재로 다루어 나가면서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진보적 연극운동이다. 즉 마당극은 정치적 민주, 사회적 평등, 문화적 주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을 담은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후에 민족현실을 민중적 입장에서 형상화해내는 연극예술이라는 의미에서 ‘민족극’이라는 용어가 마당극담당자들에 의해 정립되는데 이는 마당극, 노래극, 마당굿, 대동놀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극사에서 노동을 소재로 한 연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는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계급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산업현장의 중심에서 많은 모순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연극이 노동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대 노동연극은 현장성을 중요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연극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한 장르로 볼 수 있다.

연극은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가장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연극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강한 현장성을 담보한 노동연극은 선동성 때문에 강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 70년대 말부터 노동을 소재로 한 민족극은 급격히 확산되는데 이는 당대의 사회운동의 흐름과 긴밀히 결합해 들어가는 민족극의 작품 활동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민족극 계열에서 논의된 노동연극에 대한 글들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현장문화 예술활동을 전개한 주체들이 실천적 활동의 결과물로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정리한 기록들¹⁾이 있다. 이 글들은 70년대에 시작된 탈춤보급운동에서 시작하여 생활연극, 촌극, 대동놀이, 공동체 놀이를 중심으로 하여 노조문화패의 성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들은 예술 교육적 측면에서 노동자조직과 의식화교육에 있어서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문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노동연극은 생활집단의 탈놀이, 촌극의 형태로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든 연극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동운동과 결합된 노동자 문예활동의 측면에서 조직적 차원으로 노동연극의 방향과 활동을 평가한 글들²⁾이 있다. 이 글들은 노동자 문예운동의 부분운동으로써의 노동연극의 역할과 노동자 문예운동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노동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대중선전, 선동적 차원에서 노동연극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들은 일차적으로 노동연극을 노동자 정치의식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보적 예술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연극은 대중투쟁에 있어서 보다 많은 대중을 투쟁에 포괄하기 위한 문화의 선동적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본가를 위시한 지배계급의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로써 평가된다.

그러나 노동연극에 대한 연구사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마당극에 대한 연구는 누락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연극에는 당대 그들

의 삶과 계급적인 패러다임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대상은 1980년대 초기 민주노조에 의해 창작되어 공연되어진 노동연극이다. 노동운동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비로소 가장 기초적인 단결을 이룰 수 있고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주와 교섭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육, 선전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조직이며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진정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연극 속에는 당대 노동자들이 추구했던 사회의 지향점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전제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연극을 통하여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민중의 힘을 모으는 장으로 연극을 활용했다.

이 글에서는 『민족극대본선3-노동연극 편』³⁾을 기본 자료로 채택할 것이다. 『민족극대본선3-노동연극 편』에는 민주노조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과 전문연행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글의 목적에 맞게 민주노조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작품은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원풍모방 놀이마당 '79>, <조선방직 노동쟁의 사례극>, 콘트롤데이터 노동조합의 <금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이다. 이 작품들은 전문연행집단에서 만들어진 작품과는 다른 질감의 작품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선행 논의들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세 편의 작품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노조 초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극적으로 형상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민주노조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1980년대 마당극의 발전 경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김성진, 『삶과 노동의 놀이』,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화사, 1983.
류혜정, 새로운 대동놀이를 위하여, 『한국문학의 현대론』, 창작과 비평사, 1983.
박강의, 제1회 노동자연극제 보고서,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겨울호.
박정열, 『대중문예사업보고서 <빼앗긴 작업복>』,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장간호.
2) 라원식, 80년대 노동현장 문화예술활동의 궤적, 『문예운동의 현대론과 전망』, 한마당, 1991.
박영정, 꽃다지운동의 성과와 전망,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가을호.
이영미, 『현장문화활동과 공동체 놀이, 촌극, 공동창작방법론』, 『마당극·리얼리즘·민족극』, 현대미술사, 1997.
백원담, 민중민주변혁운동의 현대론과 노동자 문화운동, 『사상문예운동』, 풀빛, 1989, 가을호.

3) 민족극연구회 엮음, 『민족극 대본선3-노동연극 편』, 풀빛, 1991.

2. 작품의 창작배경

한국노동운동사에서 1970년 전태일의 죽음은 중요한 계기점이 된다. 이 전태일의 죽음을 기점으로 노동자의 각성이 일어났다. 이러한 각성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다. 노동자들은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현장 속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담아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태일의 죽음이후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합법화 투쟁에 나선다. 이어 1973년부터 새로운 민주노조들이 탄생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1974년 결성된 노조 중의 하나가 콘트롤데이타 노동조합이다. 원풍모방노동조합은 1963년 9월 섬유노조 의류지부 한국모방분회(당시 회사명 한국모방주식회사)로 결성되었다가 1967년 6월 한국모방지부로 승격되며, 1974년 12월 원풍산업이 한국모방을 인수함으로써 원풍모방지부가 되었다.

이러한 민주노동조합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집약시키고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하게 오랜 시간동안 노동을 하여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조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의 장을 넓혀 나갔던 방법은 소모임 활동의 적극 장려라고 할 수 있다. 소모임 회원들은 처음에는 주로 꽃꽂이, 자수, 서예 같은 것을 취미삼아 배웠지만 차츰 독서와 학습으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 또한 소모임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교육을 꾸준히 하였다. 따라서 소모임 활동은 자연스레 노동조건 개선투쟁으로 연결되었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강력한 뿌리가 되었던 것⁴⁾이다.

소모임이 결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 문화조직이 자연

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문화조직이 활성화되면서 탈춤, 연극, 문학, 노래 등의 문화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소모임은 탈춤반이라 할 수 있다.

1977년 원풍노조가 탈춤반을 결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조직은 대개 노동조합원과 소수의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소모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의식화 교육의 일환이 되었다. 1979년 말에는 콘트롤데이타 노조에 탈춤반이 결성되고 80년대에 문화조직은 점점 증가하였다.⁵⁾

민주노조의 초기 탈춤반은 대학 탈춤반·연극반 출신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당시 현장문화 활동을 주도한 것은 소위 제2세대 문화운동 활동가라고 불리는 72학년부터 75학년까지의 사람들이었다. 1978년부터 민주노조의 조직적 기반 위에서 그 안에 탈춤반, 연극반을 만들고 지도하면서 노동현장 접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노조나 농민회처럼 합법적인 대중조직의 틀이 있는 경우에는 민주노조나 농민회를 도와 소모임을 함께 조직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역량을 가질 때까지 교육해 주었다. 반도상사 연극반, 원풍모방 탈춤반, 콘트롤데이타 탈춤반,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모임에서의 작업 등은 모범적인 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탈춤반이나 연극반에서 예술문화 활동을 한 사람들은 노동조합에서도 열성적인 조직원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쳤던 것이다.⁶⁾

문화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통하여 조합원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역사와 사회라는 큰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는데 일조하였다. 탈춤반 소속 노동자들은 이들을 통하여 탈춤과 풍물을 배우고⁷⁾ 촌극을 접하게 된다. 탈춤반 단원들은 회사 내에

5) 김대호, 한국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와 성격, 『공동체문화』 제3집, 공동체, 1986, 145-146면.

6) 이영미, 위의 글, 108-109면.

7) 원풍노조의 탈춤반을 지도한 이들은 연세대, 아주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 출신들로

4) 원풍모방노동운동사발간위원회, 『원풍모방 노동운동사』, 삶이 보이는 창, 2010, 279면.

서 공연을 하였는데 그들이 선보인 탈춤은 전통탈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전통형식에 당대의 현실, 특히 연행자인 노동자 자신들이 직접 겪는 노동현장의 애환을 담아내었던 것⁸⁾이다. 이들의 공연은 탈춤을 패러디한 짧은 촌극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극을 공연하면서 역량이 점층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마당극 창작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느끼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연극을 통해 이야기 한다. 그러한 성과가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원풍모방 놀이마당 '79>, <조선방직 노동쟁의 사례극>, 콘트론테이타 노동조합의 <금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로 나타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본으로 공연을 하면서 노동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주된 내용은 기업주의 삶과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이 공유하였던 당대 노동문제들을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려 하였고 사회적 통로로 활용하였다.

3. 노동현실의 형상화와 계급의식의 각성

민주노조에 의해 공연되어진 연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연극에서는 의식화된 노동자와 의식화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라는 변별된 인물을 상징하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관객들에게 조금씩 인식시켜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구성된 연합 탈춤반이었다.

원풍모방노동운동사발간위원회, 위의 책, 374면.

8) 원풍모방노동운동사발간위원회, 위의 책, 374면.

노동자1 아이쿠 아이쿠 팔다리 허리 머리야

노동자2 아니, 어찌다 이렇게 목사발이 되게 터졌소?

노동자1 말도 마시오. 지부장인지 된장인지 닭들이 비비고 노는 고고장인지 하는 놈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요모양 요꼴로 만들지 않았겠소?

노동자3 노동조합도 좋지만 자제 꼬락서니가 이게 뭐가.....중략.....

노동자4 그럼 그럼, 우린 공부를 못했으니 출세를 할 수 있나, 부모가 돈병철이 아니라서 돈이 있나, 그저 남은 거라곤 부모님께 물려받은 허약한 몸뚱아리 하나이니 부지런히 일이나 하여 어르신네한테 잘 보여 한 호봉 더 따내는게 장땡이지.⁹⁾

아직 의식화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자신들의 현실에 체념하게 되고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면서 현실적 이익에 따라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의식화된 노동자로 상정된 노동자1이 권력자들은 온갖 악독한 것으로 사람의 피를 말린다고 해도 의식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권력자들은 부모 잘 만나서 많이 배우고 출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자1의 말에 의문을 가지던 의식화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들이 병신들의 형태로 상징화되어 나타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털어놓자 자신들의 부당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해도 못사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서히 그들은 노동의 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노동자3 아, 그리고 보니 네 말이 맞다. 1970년이면 뭐가 되고 1980년이

9) 위의 책, <원풍놀이마당 '79>, 풀빛, 1991, 14-15면.

면 잘 산다고 하여 허리띠 조르자고 해서 그 말 듣고 졸랐더니 변해진건 누래진 얼굴, 먼지 먹어 폐병만 남더라. 아, 내 친구도 체불임금 달라고 혼자서 나섰다가 껌씹죄로 낙인 찍혀 부서이동당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해고시켜버리더라.¹⁰⁾

노동자1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식화되지 않은 노동자3은 각성된 노동자상으로 나타난다. 그는 한국사회의 70년대 80년대 산업화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역군으로 일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짓밟고 오히려 부당할 해고를 하고 만다는 권력자들의 허위의식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2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데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소. 당신들의 행위는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것이오.¹¹⁾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경제발전이나 수출성장에 기여한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공돌이 공순이라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각성된 노동자2도 노동자들도 인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계급의식은 특정한 개인이 공통적인 계급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것을 지칭하며 나아가 개인이 속한 계급이 즉각적이고 공통적인 계급이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계급이익이 타 계급의 이익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계급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지를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계급이 전체사회 및 역사과정 속에 처해 있는 객관적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다.¹²⁾

장시간의 고된 일 잦은 밤샘작업과 일요일조차 쉬지 못하는 무휴일의 공장생활은 노동자들에게 여가시간을 주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본적으로 사람을 기계나 농장의 동물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와 천한 지위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당연시 여기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회사를 꾸리는 산업역군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들의 요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전체적인 권위관계에 대한 반발이기도 한 것이다.

어용지부장 네 이놈, 게 샐지 못하겠느냐?

노동자1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어용지부장 네 이놈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잔업하지 말자고 사람들 선동했지

노동자1 아 지부장님은 사장님과 꼬박이나 드시고 카메라 수집하러 다니시느라 우리 사정 모르지만 아 우리가 잔업하고 싶어한 것이오? 잔업하지 않으면 임금이 사정없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오? 게다가 잔업하라, 특근하라, 팔썬서, 비만 오면 허리까지 쑤시는데 우리도 우리 몸 생각하며 잔업해야지, 우리 몸 죽여가며 잔업하란 말이오?

어용지부장 아 이놈아, 내가 특근수당에다 잔업수당 다 따주고 의무실

10) 위의 작품, 16면.

11) 위의 책, <조선방직 노동쟁의 사례규>, 27면.

12) 김대호, 위의 글, 133면.

까지 다 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네 이놈, 노조운영 규칙 위반죄다.

노동자1 어이쿠!¹³⁾

어용지부장과 노동자의 대화를 통해서 관객들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다. 또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용지부장의 대사는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대사의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회사간부의 환경을 대비시켜 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관객들에게 노동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에 반복되는 ‘어이쿠’라는 대사는 노동자와 관객들의 정서를 동일화시켜 어용노조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에서는 모집마당과 병신마당을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다국적 기업인 미국 콘트롤데이터의 노동착취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부당해고와 폭행으로 대응하는 회사 측과 한국 정부, 그리고 노동자 모두에 대한 집단해고라고 할 수 있는 회사철수의 배후세력인 미국정부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의 이야기가 형상화되어 있다.

첫 번째 마당인 모집마당에서는 사용주가 등장하여 콘트롤데이터의 회사소개와 함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

사용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3공단 콘트롤데이터 코리아 주식회사 인사담당 전무옵습니다. 금번 당사에서는 미래를 창조할 용모단정한 산업역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44개국 지사를 갖고 있는 문어발식 다국적기업옵습니다.중략,.....

둘째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자라는 모토 아래 본 보건실에서 번비에는 86 돌코락스, 근육통에는 88파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오랜 의사생활로 생긴 위장병과 납연기 먹고 검은 가래가 나올 때이런 경우에는 넉넉히 드린 임금으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에헴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을 감수하면서도 14년 근무시 14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받는 액수의 14분의 1이 올시다!¹⁴⁾

사용주의 대사를 통하여 콘트롤데이터라는 회사의 정체가 폭로된다. 또한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열악함을 극대화하여 그려놓은 마당이 병신마당이다.

(코병신, 눈병신, 콧병신 세 병신이 등장하여 노동무를 춘다. 점차 피로에 지친 모습을 보이며 일을 하세 노래를 합창한다)중략,.....

감독 어기, 미스 코! 일하는 품이 마음에 안 들어.

콧병신 (코를 쥐고 엉거주춤하게 일하다가) 냄새가 나서 그래요.

감독 그래? 거, 자꾸 말다보면 괜찮다고, 괜찮아.

말뚝이 아니,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달걀 썩는 냄새가?.....중략,.....

콧병신 아, 바로 예서 나는 이 냄새 말이냐? (일감을 들고 코에 대준다) 냄새도 냄새려니와 속이 울렁울렁, 머리는 지끈지끈, 아침에 먹은 라면이 넘어올듯 말듯, 그러니 냄새가 문제겠느냐!¹⁵⁾

병신마당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결

13) 위의 책, <원풍놀이마당 '79>, 13면.

14) 위의 책, <금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 31-32면.

15) 위의 작품, 33면.

국 눈병신, 콧병신, 콧병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적이다.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해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일감에서 나오는 독한 냄새도 자꾸 맡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일을 재촉하기만 한다. 근무 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반장의 허락을 받고 가야한다는 감독의 대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의 고통을 비애스럽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마당극의 비극성의 주조는 비애이며 이는 마당극의 중심인물이 하층민, 서민이며 주로 고귀한 정신적 영역의 일들보다는 일상적인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관심을 지배적으로 보인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⁶⁾ 마당극의 인물들은 자신이 일에 대한 대가, 일의 조건, 의식주를 해결할 돈,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최소한의 자존심 같은 것들에 대해 강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며 인물들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한다. 여기에서 비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지는 상황적 비극은 노동력 착취에서 발생하는 비극이다. 8시간노동과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회사 측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는 것이다. 12시간씩 노동을 하면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을 챙겨 준다는 회사 측의 약속은 거짓이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요구는 폭력에 짓밟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며 누구나 그 상황이면 울먹일 수밖에 없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다는 수긍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비애는 관객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러한 비애감은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비애감은 개인의 차원에서 그려진 비애감이 아니

라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는 집단적 비애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애감이 비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조의 마당극은 비애의 장면 바로 뒤에 비장한 결의를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비장한 결의의 개연성을 높여나간다.

조합원3 우리의 요구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싸움은 지구가 숨쉬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탄압과 억압이 있는 현장에 동참하여 우리는 투쟁을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¹⁷⁾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부당하나 탄압과 억압에 투쟁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여기에 민주노조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노동자6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노동자의 인권확보와 민주자유노조운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방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합니다.¹⁸⁾

비장한 각오는 주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고통을 주체적으로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가 비장한 각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접,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등의 불만사항을 주된 이유로 하여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으로 나아가는 장면은 민주노조에서 공연된 작품들이 모두 가지는 공통적인 형상화방법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회사 측의 횡포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회사 측의 횡포와 탄압

16) 이영미,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6, 267면.

17) 위의 책,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 50면.

18) 위의 책, <조선방직 노동쟁의 사례극>, 27-28면.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양된 투쟁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다운 대접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굴하지 않는 용기와 투쟁의 의지에 이 작품들이 주는 감동은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조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연극들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양상보다는 노동자가 인간대접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양상이 그려져 있다.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반면 투쟁의 모습을 농성이나 시위 등의 투쟁의 모습은 마지막 장면에서 짧게 그려진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억눌린 요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염원’이 극에 표출되었던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계급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인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지의 발현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통극의 수용을 통한 지배계급 비판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편의 연극은 지배계급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주된 양상을 이룬다. 이 연극들은 전통극의 양식 즉 탈춤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년대 초기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연극들은 탈춤반 소모임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탈춤반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탈춤의 요소들을 연극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정정도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보았던 당대 마당극에서는 관습적으로 탈춤의 요소들을 활용하였고 비전문가집단이었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탈춤의

소를 가지고 비교적 용이하게 연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전문적인 연극의 이해가 없었던 그들은 앞 시기부터 행해졌던 마당극이 전통극의 요소를 활용하여 창작하고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연극 속에도 전통극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공연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연극들은 전통극에서 양반계급이 스스로의 결함을 폭로하여 비판을 가하는 것처럼 지배계급이 지닌 허위의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형식을 취고 있다.

강일매 나의 전직을 말할라 치면 첫째 동화백화점에서 말쑥꾸러기 뽑아내고 해고시키는데 대장이고 둘째 장기간 근무하여 누렇게 뜬 쌍관대기들을 처지하는데도 대장이고.....

비서 아이고 사장님, 대장, 대장, 대장, 어디 그뿐이옵니까. 배꼽 맞당고 이층집 짓는데도 대장이오니 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진진한 이쪽저쪽 불기로 유명한 진진한 노총위원장 진진한이올시다. 저의 과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서 불쑥, 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놈들과 위험한 놈들을 사장님 신경 안 쓰게 갈갈이 찢어 분열시켜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한 그 기업주를 위해 몸바칠 것을 맹세했으니, 공돌이 공순이 문제는 염려마시고 그저 사장님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십시오.....중략.....

비서 (관객들을 향하여) 흥 전직을 못 속인다고 (돌아서며) 아,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¹⁹⁾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으로 인식되는 자본가들은 어용노조를 내세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그들이 민주노조의 결성을 막는 논리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조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파괴할 뿐이다. 노

19) 위의 책, <조선방직 노동쟁의 사례극>, 23면.

동자들은 이름이 구체적이지 않고 집단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것에 반해 적대적 인물들은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도덕적 결함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강일때’나 기업주에 아침을 일삼으며 민주노조를 분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전진한’같은 인물은 부정적 인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허위의식의 폭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에서 공연된 연극에서는 적대적 인물을 상징하여 드러내면서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 이강패** 우선 구사대를 조직하고
정여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이강패 노조를 분열시켜
정여우 지부장 갈아치우고
이강패 안되면
정여우 여차직하면
이강패 문을 열어 잠그고
정여우 감금해서
이강패 두들겨 패고, 이히 신난다.²⁰⁾

이 장면에서는 탈춤의 대사운용 방식은 대거리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거리 방식은 사건의 본질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만을 핵심적으로 집약하여 보여준다. 대부분의 관객은 극을 통하여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이 확보되어 있고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에 대한 설명적인 나열은 불필요해지고 거추장스러워지기 때문에 사건의 속성만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사대가 어

떻게 조직되었고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는가가 세부적으로 묘사될 필요는 없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대거리의 운용방식을 사용하여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억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거리 대사의 운용방식은 지배계급을 희화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노조에 대한 분열과 폭행을 놓이처럼 진행되는 대거리 방식을 보면서 관객들은 가소로움을 가지게 된다. 이는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키고 권력의 우상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풍놀이마당⁷⁹>는 봉산탈춤 제6과장인 양반과장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해서 탈춤에서의 양반과 말뚝이를 사장과 노동자로 바꾸어 어용노조 지부장과 노동자들의 대화, 사장과 말뚝이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봉산탈춤의 양반마당의 구조는 양반의 위엄을 나타내는 대사를 하면 양반의 위엄을 파괴하는 말뚝이의 대사가 오고 말뚝이를 꾸짖는 양반의 호령, 말뚝이의 변명, 변명을 듣고서 납득해 양반이 안심하는 대사로 진행된다.²¹⁾ 그 중 몇 개가 거듭되기도 하고 몇 개가 빠지기도 하나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이 작품의 놀이마당에서는 어용지부장의 호령, 노동자의 반문, 어용지부장의 호령, 노동자들의 입장, 어용지부장의 호령, 말뚝이의 한탄으로 일정하게 대사가 반복되어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대사 구조를 취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말뚝이의 한탄 속에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집약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뚝이는 지배계급의 허위의식을 폭로하여 노동자들과의 대립을 야기 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20) 위의 책,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 48면.

21)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95, 202면.

한국의 전통극에서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민중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극에서 말뚝이는 언제나 거침없이 활동하며 현실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1970년대 마당극에서부터 이러한 말뚝이는 극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말뚝이는 구체적인 민중으로 형상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통극에서 가지는 말뚝이의 전형성이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마당극에 등장하는 말뚝이는 그 시대의 구체적 민중이 아니므로 그의 풍자는 날카롭게 정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만담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풍자는 민중의 혁명적 비판정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웃음을 유발한 말장난이 되어버린 것이다.²²⁾ 구체적인 민중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는 말뚝이는 관념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 관념화된 인물 속에서 날카로운 비판정신은 감소되기 마련이다. 또한 70년대 마당극에서 등장하는 말뚝이는 민중의 힘을 모으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 한다.

80년대 초기 민주노조에 의해 공연되어진 연극 속에 등장하는 말뚝이는 70년대 마당극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 진다. 우선 말뚝이는 철저하게 노동자로 형상화 되어 있다.

양반 야, 이놈 말뚝아.

노동자2 예이.

양반 너희들 위해 노조를 만들어주었는데 무슨 놈의 노조를 또 만들려고 야단법석을 떠느냐. 회사는 하나인데 웬놈의 노조는 두 개씩이나 된단 말이나.

노동자2 아, 그 놈의 있다는 노조가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모르겠소이다. 노동조합이란 본시 노동자 권익과 생계보호를 위한 것인데 어찌된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익보호는 고사하고 지부장인지 지아들놈인지 저 한 몸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

를 외면하고 회사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아주겠소.

양반 저런 무식한 놈이 있나. 노조가 있는데 새로운 노조를 만든다니 두 개의 노조가 함께 있단 말이나?

노동자 아 이런 양반님 모르는 소리 작작하오. 언제 우리가 두 개 노조 만든다 했소이까. 우리를 위한 지부장 세우고 우리를 위한 노조 만들어 노동자 위해 활동하는 새로운 노조로 그놈의 어용노조 뜯어고쳐 개혁한다 했소이다.

(불림조로) 노동인권 보장하라!²³⁾

<원풍놀이마당'79>의 마지막장면이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말뚝이와 양반이 주고받는 대사의 규칙을 깨트리고 있다. 이 장면은 노조에 관한 부분인데 노동자가 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양반을 호통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선언적 구호를 외침으로 끝이 난다. 이것은 관객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대사의 반복되는 구조 속에 가지는 기대를 어긋나게 하여 극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이러한 말뚝이 대사의 반전을 통해서 극에 집중도를 높이게 하여 강한 응집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실적 고통 뒤에 배치된 이 대사를 통해 민주노조 결성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에서도 말뚝이의 적극적인 활약상을 볼 수 있다. 말뚝이는 정공법으로 지배계급의 실체를 해부하고 비판한다.

양키귀신 (한참 생각하다) 참으로 골치아픈 나라입니다. 하긴, 나야 우려먹을 만큼 우려 먹었으니 크게 미련이야 없지만.... 그래도 조금 양이 덜 차서.... (갑자기) 좋습니다. 국내문제도 그러하고, 기술진고 인해 조금 생각해볼 점도 없지 않으니 사견 수

22) 강영희, 『리얼리즘정신의 제고를 위하여』, 『공동체문화』 제3집, 공동체, 1986, 199면.

23) 위의 책, <원풍놀이마당 '79>, 20면.

습이고 뭐고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곳곳 빨아먹을 꼴단지야 얼마든지 있으니깐....

정부귀신 아이고, 고마우신 말씀.

(정부귀신, 기업귀신 손뼉치며 좋아한다. 이때 말뚝이 등장)

말뚝이 어허, 그놈들 고락서나 한번 희한하다. 보아하니 하는 것이 쾌짌하고 노는 꼴이 가관이구나. 이놈들도 윗놈, 아랫놈 구별이 있으니 순서대로 정체를 밝혀보자.

(양키귀신에게) 요놈 생긴 꼬락서니 좀 보게. 탐욕스레 부름 뜬 시퍼런 두 눈에다 한 손엔 핵무기 들고 한 손엔 달러 들고, 토끼꼬리만한 작은 나라라고 우습게 여겨 네놈들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저임금으로 수백만 노동자를 착취하고, 들쥐 같다, 철이 없다, 망언에다 망발하더니, 최근에는 병든 소까지 팔아먹고 덤핑 판정 평평하니, 지은 죄가 끝이 없고 죽은 혼백노하신다. 예기 이놈야! 네 죄를 내가 알렸다.....중략..... 이런 욕시랄 놈, 총체로 두들겨패야 내 속이 조금이라도 풀리겠다. 이런 쾌짌한 놈들!

(말뚝이 불림으로 “노동악법 개정하고 임금동결 철폐하라!”를 크게 외친 후 퇴장하면, 정부귀신, 기업귀신도 뒤따라 퇴장한다²⁴⁾)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의 3귀마당에서는 정부귀신과 기업귀신 양키귀신이 등장하여 민주노조에 대한 음모를 드러낸다.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부당하고 폭행으로 대응하는 회사 측과 한국정부 그리고 콘트롤데이터 노동자 모두에 대한 집단해고와 다를 바 없는 회사 철수의 배후세력인 미국정부의 입장이 드러난다. 이를 통하여 콘트롤데이터의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착취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 기업, 미국정부가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무렵 등장하는 말뚝이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호통을 치며 비판한

24) 위의 책,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나>, 41-42면.

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과 공해산업을 한국에 유치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는 것, 양심을 팔아 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해고를 한 불합리성에 대해 요목조목 짚어 나간다.

이렇게 80년대 초기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연극에 등장하는 말뚝이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한 군데로 모아 주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으로부터 받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라는 부당한 대우는 당대 노동자들이 겪었던 공통의 경험이었다. 당대 노동운동의 초점이 임금인상과 8시간 노동조건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뚝이가 등장하여 지배계급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함께 묶는 것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말뚝이의 이러한 역할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노동자들의 마음을 해소한다. 또한 지배계급과의 싸움을 심화시켜 준다. 현실에서는 오래 걸려서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싸움을 그 본질적인 속성만 따서 급격하게 나타냄으로써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스스로 허위의식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속성을 부각시켜 노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에 말뚝이는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조롱과 비판의 대사를 통해 지배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²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 작품의 의미 - 결론을 대신하며

1980년대 초기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노동연극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70년대 노동연극에서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시간에도 불

25) 기상있게 말뚝이가 등장하여 그들을 조롱할 때는 모두 박수를 치고 요절복통하며 통쾌해 했고 말뚝이의 빛나는 승리를 행복해하며 구호를 함께 했다. 원풍모방노동운동사발간위원회, 위의 책, 401면.

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고발할 뿐이었고 노동자의 정체성 인식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 한다.

80년대 초반 민주노조에서 노동연극은 노동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연극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계급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당대 노동의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노동자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게 한다. 이런 조건에서 긍정적인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무척 힘든 작업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조합 중심의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획득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계급의 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공돌이 공순이라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노동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자기 계급의 공통적 계급이익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른다. 직장 현실과 주변 환경의 모순에 대한 인식의 형성은 노동문제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기계급의 이익이 다른 계급의 이익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를 발전시키는 단계에 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노동연극에서 볼 수 없었던 면이 부각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이다. 민주노조에서 공연되어진 연극 속에는 노동조합 결성의 당위성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연대투쟁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조직화 시켜나감으로

써 투쟁력을 강화시켜 노동자 개인이라면 언지 못하는 성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상은 이후 연극에 등장하는 노동자 상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후 80년대 중반에 등장하는 노동연극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자가 역사적 주체라는 인식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 지식인과 대학생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마당극들은 사회비판적인 성격을 담보하고 있었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노동연극은 이러한 관념적인 성격을 견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현실이라는 상황적 진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실천적인 연극은 리얼리즘 정신을 획득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 초기에 민주노조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연극의 리얼리즘 정신의 획득은 이후 노동연극에서 강화되고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초기에 공연되어진 노동연극은 전통극을 수용하여 사회비판적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말뚝이로 형상화되어 있는 노동자를 통해 노동문제를 쟁점화 시키고, 지배계급의 비판을 통해 부당한 탄압과 억압에 대항하자는 투쟁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 공연 이후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투쟁의 장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투쟁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즉 80년대 초기 민주노조에서 만들어진 노동연극은 노동자 의식을 확대²⁶⁾하고 대항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장을 형성해 나갔고 이후 노동연극

26) 이영미는 관중들은 극중 상황에서 현실 상황으로의 이행과 양자의 넘나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한 양자의 넘나듦은 현실의 인식을 극중 상황에서도 잃지 않게 하고, 극을 통해 증폭된 인식과 정서를 현실 속으로 이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미,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6, 208면.

에서는 이러한 면을 발판으로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응집력을 넓혀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기 민조노조의 노동연극은 관객층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동자라는 기층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행하여진 마당극은 노동자관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객의 확보는 마당극의 과급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낸 연극은 노동소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다양성이라는 풍부한 토양을 이후 연극계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민족극연구회 엮음, 『민족극 대본선3-노동연극 편』, 풀빛, 1991.

2. 논저

강영희, 「리얼리즘정신의 제고를 위하여」, 『공동체문화』 제3집, 공동체, 1986.

김성진, 「삶과 노동의 놀이」,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학사, 1983.

김대호, 「한국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와 성격」, 『공동체문화』 제3집, 공동체, 1986.

라원식, 「80년대 노동현장 문화예술활동의 궤적」, 『문예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마당, 1991.

류해정, 「새로운 대동놀이를 위하여」, 『한국문학의 현단계Ⅱ』, 창작과 비평사, 1983.

박강의, 「제1회 노동자연극제 보고서」,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겨울호.

박영정, 「꽃다지운동의 성과와 전망」,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가을호.

박정열, 「대중문예사업보고서 <빼앗긴 작업복>」,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창간호.

백원담, 「민중민주변혁운동의 현단계와 노동자 문화운동」, 『사상문예운동』 가을호, 풀빛, 1989.

이영미, 「노동연극의 방향찾기와 투쟁 속의 노동연극」,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 연구회, 1992, 창간호.

_____,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6.

_____, 「현장문화활동과 공동체 놀이, 촌극, 공동창작방법론」, 『마당극·리얼리즘·민족극』, 현대미학사, 1997.

원풍모방노동운동사발간위원회, 『원풍모방 노동운동사』, 삶이 보이는 창, 2010.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95.

Abstract

The study of labor play in early 1980s

Im, Ji hee

Madangeok (a play in a court) is a type of a play that deals with all sorts of social problems. It can be said that popular aspiration is incorporated in Madangeok to establish democratic government, social equality, and the core of culture.

Madangeok having a subject matter of labor has been spread since late 1970s. This is why a labor movement i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movements.

This writing deals with labor plays created by the Democratic Labor Union. In 1970s Jeon Taeil's burning himself to death led to form the Democratic Labor Union and awaken laborers lively.

The Democratic Labor Union organized small groups to control them. One of them was a group of a masque dance. This group made plays to make use of social passages. Workers began to try to find their identities through the plays created by the Democratic Labor Union.

Those who were despised at that time hoped to promote their social rank and live in state as laborers. Also, they started to insist their rights, which were to improve their serious working environments and get paid for their labors.

Finally workers realized that they were deprived by ruling class. The plays created by the Democratic Labor Union have criticized the ruling class picking structures of the masque dance. The masque dance uses a way of making a caricature to disclose the faults of ruling class like Yangban to the public. Besides Maldduk appears criticizing the ruling class to get laborers' resistance consciousness together. The plays created by the

Democratic Labor Union include the desire of workers' resistance will power and building new society.

Key words : madangeok, labor plays, democratic labor unions, social criticism, identity

접수일: 2012년 2월 1일
심사기간: 2012년 2월 13일~3월 16일
게재결정: 2012년 3월 16일